

# 조선산업



## 환율 변화와 해외 선주들의 발주 움직임 비교

산업분석

2025. 08. 28

treaboat@treaboat.com

### 산업 전망

### 유로화 가치 상승에도 선주들의 선박 발주 둔화

역사적으로 선박 발주량은 유로화 환율이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때 증가되었다. 세계 해운업을 주름잡는 유럽 선주들의 자국 통화 가치가 높아질 때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로화 가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적은 유로화로 높은 가격의 달러화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며 역사적으로 달러화 대비 유로화 환율이 1.2이상에서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1.5 이상이면 선박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올해 유로환율은 연초의 1.04에서 최근 1.17로 급하게 높아졌다. 단기간에 유로화 가치 상승폭이 높았으면서 1.2달러/유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박 발주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지만 올해 선박 발주량은 과거의 흐름과 달리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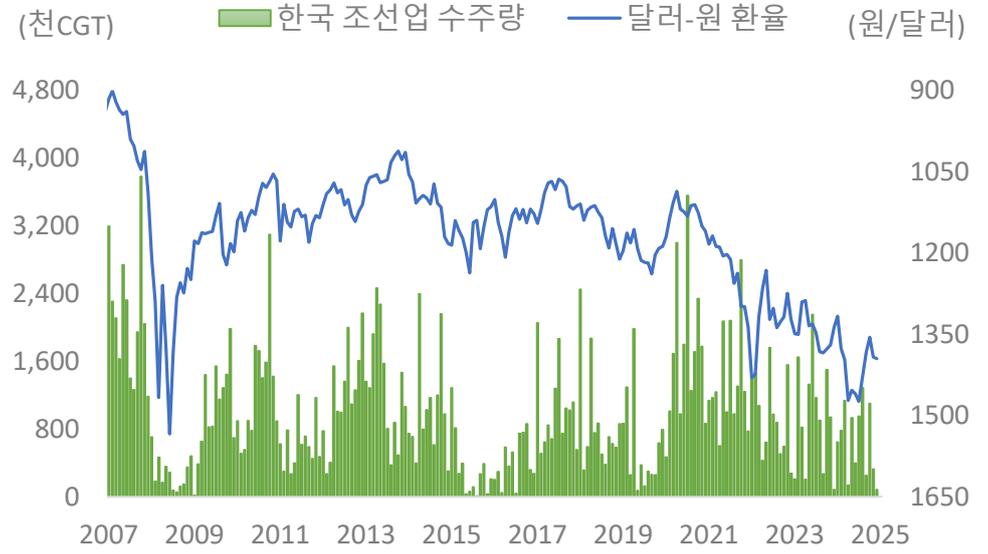
### 미국의 관세 정책과 물동량 둔화 영향

올해 7월까지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23,262천CGT로 지난해의 47,647천CGT에 비해 51.2% 감소되었다. 올해 상반기동안 유로화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해외 선주사들의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정상적인 매크로 환경이었다면 올해 선박 발주량은 더 늘어나야 했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정책은 전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키고 있어 선박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해상 교역량의 영향으로 해상운임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의 선가로는 선주들이 선박 투자를 늘리기는 것에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한국 조선업 수주잔고 감소 지속

유로화는 강세 이지만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약세라는 점에서 한국 조선업의 수주잔고가 단기간에 대폭 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조선업의 생산성이 매우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에서도 선가 경쟁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 조선업의 수주잔고는 이미 2년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연말이 되어도 감소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 유로-달러 환율과 전세계 선박 발주량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